

'07.5.3 (목) 조건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석유산업팀장 이학노 (2110-5451), 사무관 김재준 (5456)

**석유위기에 대비, 중동 산유국과 전략적 협력관계구축
- 이재훈 산자부 차관, 사우디·쿠웨이트·UAE 등과 연쇄회동**

□ 4.30-5.4일간 제2차 아시아국가 장관급 회의 (The Second Ministerial Energy Roundtable) 참석을 위해 사우디를 방문한 이재훈 산자부 차관은 회의 주최국인 사우디를 비롯하여, 쿠웨이트, UAE 등 중동 산유국 등과 양자회의를 열고 양국간 현안과 공통 관심사를 협의 (제2차 아시아국가 장관급 회의 결과 별첨)

※ 특히 개최국인 사우디와의 양자회의는 한국대표단의 사우디 방문 환영을 위해 공항에 나온 알-나이미 석유광물부장관의 전격 제안으로 개최

□ 산유국 및 국제기구와의 양자회담 성과

- ① 고유가의 안정화 및 석유위기시 안정적 공급에 대한 산유국의 공감대 유도
- ② 쿠웨이트, UAE, 카타르 등 중동 주요 산유국과의 국제 공동비축사업 확대를 통해 비상시 대응능력 제고
- ③ 인도, 일본 등 주요 소비국과 소비국 위주의 국제기구인 IEA와의 공조를 통해 자원외교 분야에서 한국 입지를 강화

① 고유가의 안정화 및 석유위기시 안정적 공급에 대한 산유국의 공감대 유도

○ 현재의 고유가 상황은 “원유의 수급”보다는 “이란 핵개발로 인한 긴장 요인” 등 국제정치상황에 기인함

- 사우디의 알-나이미 석유광물부 장관은 “현재의 원유가격에 버블이 있음”을 지적
- UAE 알 하밀리 에너지부 장관(현 OPEC의장)은 현재의 고유가는 산유국과 소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
- 오만 알-룸히 석유가스부 장관은 “현재 유가에는 10~15\$ 수준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다”는 설명

○ 석유위기시 한국에 대한 우선 공급 요청에 대해 산유국 장관들은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

- 카타르 알 사다 에너지산업부 장관은 “공급상에 다소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감수하고” 한국에 중단없는 에너지 공급을 약속
- 사우디 압둘아지즈 석유광물부 차관은 “90년 걸프전 기간에도 선적 예정 물량 이상을 공급했던” 사실을 언급하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
- 쿠웨이트 알 사바 에너지부 장관은 “아시아 금융위기시에도 한국에 원유를 공급했던” 사례를 들며, 쿠웨이트가 신뢰할 만한 공급국가임을 강조

② 쿠웨이트, UAE, 카타르 등 중동 주요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을 추진·확대하여 비상시 대응능력을 제고

- 쿠웨이트와는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국제공동비축사업 재개에 합의하여, 핵심 중동국가와 공동비축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
- 또한 UAE도 공동비축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, 조만간 우리와 신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
- 카타르는 국제공동비축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, 양국 국영 석유사간 공동비축사업 추진에 합의하였음
- 이들 국가와의 공동비축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, 우리는 임대수익획득 이외에도 비상시 우선구매권을 확보하게 되어, 국제 석유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전망

③ 인도, 일본 등 주요소비국과 소비국위주의 국제기구인 IEA와의 공조를 통해 에너지·자원 외교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강화

- 인도와는 양국간 정상외교 이후 에너지자원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, 보다 적극적인 협력사업 발굴 노력을 약속
- IEA와는 석유시장 공급중단시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, IEA 차원에서 유가안정을 위한 산유국들의 노력촉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키는 등,

- 주요 산유국과 소비국 및 에너지관련 국제기구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적극 요청하는 등 국제에너지시장에서 우리의 위상(석유수입 5위, 소비 7위)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

※ 특히, 현지에서 Dow Jones, MEES, Argus 등은 우리측에 산유국과 소비국의 협력체계 구축 가능성 등 현안을 집중 취재하는 등 관심을 표명

□ 회의 기간 및 장소 : 5.2(1일간), 사우디 리야드

□ 회의 주요 내용

- 향후 5년 ('06~'10)간 아시아 석유소비증가가 세계 석유소비증가를 견인할 것이며, 중국·일본·한국 등 동 아시아국가들의 중동지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
- 산유국-소비국간 협력관계 구축은 에너지안보 확보뿐만 아니라 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국들이 모두 동의
 - 서아시아 산유국과 동아시아 소비국간에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며, 이를 통한 에너지협력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,
 - 산유국 입장에서조차 주요 석유소비국의 장기적인 석유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산유국의 향후 성장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회의중에 부각됨
- 그러나, 산유국과 소비국간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으나, 구체적인 협력방안까지는 이르지 못함
 - 소비국측은 산유국의 투자유치 부족으로 인해, 공급안보가 취약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산유국들의 투자확대를 요청한 반면
 - 산유국측은 소비국의 수요가변성으로 인해 현재의 투자부족 사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상·하류 부문에 대한 소비국측의 투자 증대 노력을 역설함
- 한국은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'아시아 산유국-소비국 벨트 (Asia Pro-Sumer Belt)'를 제안하여 참석국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